

# 도시가계의 에너지절약태도 및 관련 행동과 전기에너지소비의 영향요인 분석

허 경 옥(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본 연구는 전기 에너지 소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을 도입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전기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할당된 결혼한 만 20세 이상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6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8월, 1달간 실시하였는데, 그 해 7월과 8월에 발부된 전기요금고지서를 설문지에 부착하거나 설문지에 전기에너지사용량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절약태도는 여성, 고졸,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중산계층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정보탐색행동은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연령이 30세 미만인 젊은 집단,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제품구매는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추구행동, 실천지향성, 건강추구행동 등 본 연구에서 도입한 이론적 관점의 변수는 에너지절약태도 및 에너지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에너지효율제품구매 및 전기에너지소비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성 변수만이 전기에너지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주택의 평수, 가족 수 등 에너지수요량이 많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절약태도 및 에너지정보탐색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절약 관련 교육 및 각종 정책 등에 제언하면 첫째,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서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너지효율제품구매는 에너지태도변수와는 달리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정보탐색은 열심히 하나 고효율소비제품의 구매동기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홍보,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졸자의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행동에서 고졸자보다 소극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에너지절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 가족 수, 주택 크기 등에 따라 적정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제시해 주어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저항을 줄이고, 불가능한 실천전략이 되지 않도록 한다.

**주요어:** 에너지절약태도, 에너지정보탐색, 에너지효율제품구매, 전기에너지소비